

學의事實을 無視하고 星州土器는 伽耶土器에 包含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熊川貝塚의 結果를 通해서 西岸인 熊川土器도 東岸形式에 屬한다는 새로운 考古學의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熊川만 가지고 所謂 伽耶土器라는 名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三

事實 以上과 같이 西岸것이 東岸에 들어 오는 地理의 出入은 있으나 新羅土器를 다루어본 사람이면 洛東江을 境界로 해서 大體로 土器가 서로 特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으며 그것은 伽耶, 新羅의 두 이름으로 잘라서 불러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더 仔細하게 資料의 整理, 分析, 統計 등이 이루어지면 더 明確한 地域의 特色들이 밝혀지겠지만 伽耶地區의 扁平한 豆形高杯, 그 脚部에 鏤린 上下一列의 細長한 透孔, 頸部가 身部에 比해 比率의 으로 커지는 傾向이 있는 長頸埴, 높은 臺足위에 壺形器나 鉢形器를 結合시킨 器形, 긴 圓筒形의 裝飾의 埴臺, 그리고 異形土器의 盛行 등 伽耶地區의 土器는 新羅中心群과는 顯著한 特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伽耶地區의 異形土器가 祭器, 儀器로서 宗教的인 色彩를 띄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는 裝飾의 基本精神은 亦是 伽耶諸國 또는 거기 住民들의 性格을 反映하고 있는 듯도 하여 古代日本의 그것과 어딘지 相通하는 感覺을 주는 點과 아울러 우리들의 注目を 끌고 있는 것이다.

四

나는 앞으로 資料의 蓄積을 기다려 나 자신의 舊說을 訂正, 補充해 나갈 計劃으로 있지만 伽耶土器의 存在가 없어진 그러한 狀態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問題는 新羅土器發生의 背景, 新羅土器의 編年, 新羅群 伽耶郡의 交流, 新羅土器發生以後의 中國土器와의 關係 등이 더 複雜한 問題거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脫線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所謂 先史時代高杯나 滿洲地區의 비슷한 高杯가 반드시 華北地區의 中國歷史時代高杯보다 時期의 으로 앞서고 獨立된 것이라는 證據가 없으며 따라서 新羅高杯起源의 問題는 日本의 彌生

土器高杯와 함께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六八年 九月 十五日 記)

百濟 烏合寺考

洪 思 俊

一

百濟의 佛教美術이 日本飛鳥와 新羅에 傳播된 事實은 이미 學界에서 周知하는 바이다. 그러나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百濟寺刹名은

- 一、虎岩寺(窺岩面 虎岩里 部落名 訖巴위)
 - 二、王興寺(新里 部落名 訖巴위)
 - 三、天王寺(扶餘邑 東南里)
 - 四、漆岳寺
 - 五、道讓寺
 - 六、白石寺
 - 七、烏合寺
 - 八、水源寺(在公州)
 - 九、大通寺(在公州)
 - 一〇、彌勒寺(在金馬)
- 以上 十個寺刹에 不過하되 中國史乘에는 비록 名寺名稱은 없으며 周書 異域傳에는 僧尼와 寺塔이 甚히 많으며 道士가 없다. 하였고 僧尼寺塔甚多而無道士 日政以後 오늘에 이르는 동안 扶餘를 中心한 百濟寺址는
- 一、定林寺址
 - 二、軍守里 百濟廢寺址
 - 三、東南里 百濟廢寺址
 - 四、佳塔里

五、觀音寺址(扶餘邑 石木里)

六、雙北里 百濟廢寺址

七、舊衙里 " (警察署地)

八、扶蘇山西腹寺址

九、扶蘇山西鄉校址

十、清潤寺址(窺岩面 新里)百濟瓦當出土

十一、金剛寺址(恩山面 琴谷里)

十二、臨江院寺址(石城面 縣北里)

以上無名有號의 寺刹址에서 百濟瓦當과 其他 遺物이 出土되어서 果然 周書異域傳百濟條의 그것과 같은 것을 認識하였다.

上記한 三國史記, 遺事의 十個寺刹名稱을 分類하여 본다면 佛敎 理念에 依한 名稱에 「天王寺. 彌勒寺」二件과 儒學에 依한 名稱에 「王興寺. 道讓寺. 水源寺. 大通寺」四件 地名에 依한 名稱이 「虎岩寺. 漆岳寺. 白石寺. 烏合寺」四件 등이다. 百濟寺刹名에는 佛敎 儒學 地名으로 區分하겠으나 三國鼎立의 新羅에서는 緣起에 依한 寺號도 있어서 皇龍寺建立의 動機를 그대로 稱號한 것 같다.

二

百濟寺刹이 文獻에 보이는 十個中에는 아직 所在不明한 漆岳寺 道讓寺 白石寺 烏合寺가 있다. 그렇던中 多幸히 考古美術九八號 資料編에 실린 「崇巖山聖住寺事蹟」에서 聖住寺 前身이 바로 烏合寺라는 確證을 얻게 된 것이다. 同時에 聖住寺址 東大學生修學旅行團員의 손에 依하여 百濟蓮華文瓦當片이 拾得된 것도 奇緣이라 하겠다.

먼저 이 烏合寺稱號가 나오는 것을 보면 史記百濟本紀에는 義慈王十五年 夏五月에 驛馬가 北岳에 있는 烏合寺에 들어가서 佛宇를 들며 술다가 數日에 죽다.

義慈王十五年夏五月驛馬入北岳烏合寺鳴通佛宇數日死

하였고 遺事에는 現(顯)慶四年己未(義慈王十九年)에 百濟 烏會寺 또는 烏合寺에서 큰 赤馬가 있어 晝夜六時에 寺院을 들다.

現慶四年己未百濟烏會寺亦云烏合寺有大赤馬晝夜六時遶寺行道

하였다. 이 두 文句를 綜合하여 考察하여 보면 百濟烏合寺가 扶餘泗泚城에서 北位에 있던 山에 烏合寺가 있고 赤馬가 佛宇를 들었다는 것을 알겠다. 以外에 日本書紀 齊明天皇四年(義慈王十八年)에 日本에서 百濟에 보내온 使臣인 西海使小花下阿曇連頰垂가 百濟로부터 돌아가서 報告된 사연을 보면

百濟伐新羅還時。馬自行道於寺金寺。晝夜勿息唯食草時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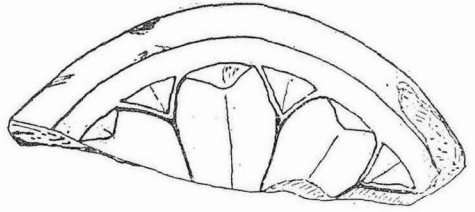
百濟가 新羅를 征伐하고 돌아와서는 말이 절 金堂을 돌아다니기를 晝夜를 하고 풀을 뜯을 때만이 그치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세 곳에 記錄이 남아 있는 것을 볼적에 烏合寺에 赤馬가 金堂을 旋廻한 것은 確實한 것 같다.

그런데 烏合寺가 遺事에는 烏會寺 或은 烏合寺로 되었다. 그러면 어떤 것이 正確한 名稱일까 또는 崇巖山聖住寺事蹟에 보이는 聖住寺 즉 烏合寺가 泗泚城에서 北岳에 該當한 位置일까 할적에 그 位置는 扶餘에서 西北方임에서 北岳에 屬한 崇巖山이라 할 것이며 聖住寺址一帶에서는 藍浦烏石이 產出하고 있어서 烏岩이 烏合. 再傳되어 烏合 또는 同意變音인 烏會로써 寺刹名稱이 變名된 것으로 알겠다.

烏合寺에 對해서는 聖住寺前身이라는 것을 이미 高裕燮先生이 言及한 바 있고 또한 李能和 著 佛敎通史 無染國師碑文에 「易寺榜爲聖住」의 註에 「寺舊名烏合寺」로 되었다. 그러나 이번 發見된 崇巖山聖住寺事蹟에는 創建年과 그 目的이 뚜렷하여서 烏合寺 位置를 찾던 筆者로는 여간 多幸하고 萬幸한 것이 아니었다.

創建되었던 年代를 事蹟記에서 보면 隋陽(煬)帝大業十二年乙亥(丙子)에 百濟國의 第二十八世惠王(法王)의 아들 法王(武王)이 創建한 것과 그 目的에는 戰勝하여 죽은 冤魂을 爲하여 佛界에 願昇하기 爲한 願利이다 하였은즉 百濟武王十七年에 烏合寺가 이루어졌고 戰爭에서 죽은 兵士를 위하여 創寺한 것을 짐작하겠다.

武王은 百濟 三十諸王中에서 가장 業積이 두드러졌고 따라서 爲人이 風儀英偉하고 志氣豪傑한 王으로써 同王三年에는 新羅阿莫山城을 쳤고 六年에 新羅東鄆를 侵攻十二年에 新羅撥峇城을 못지르며 十七年에는 新羅母山城을 다시 攻伐한 記錄을 보아서 특히 十七年의 大戰에서 戰勝의



聖住寺址金堂階段側出土
百濟莫斯瓦片1968. 10. 18

窀穸을慰靈하는 뜻에서 烏合寺를 創寺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烏合寺는 武王十七年 創建에 義慈王二十年까지 四十五年이며 以後 新羅統一의 唐宣宗大中元年丁卯(新羅文聖王九年)多十一月一日에 無染國師가 烏合寺에 至한 해까지는 百八十七年 總二百三十二年の 歲月에 그 寺名을 維持하고 온 것을 알았다.

事蹟記에 「時藍浦群賊。起劫令狄。但存第屋也」로 있어서 마치 願刹을 創建하자마자 藍浦群賊들이 寺院을 불살려 버리고 몇간의 第屋만 남은 듯한 記錄이다. 이는 百濟滅亡期の 所行일것이라 본다.

또한 無染國師가 烏合寺에 와서 文聖王의 勅賜로 聖住禪院이란 改名과 山日崇岩한적에 여러 佛殿을 改創하였는데도 事蹟記에 다시

鐘閣二層

中行廊 三百間破

外行廊 五百間破

基階窠存

水閣 七間破

庫舍 五十間破라는 것이 烏合寺時代 있던 것을 藍浦群賊의 所行이나 或은 無染國師가 烏合寺에 왔을적에 和尚이 才高德重하여 無爲而化하고 不言而信하여서 藍浦群賊들이 轉讓請益하던 當時의 群賊行爲에서 破壞된 것인지는 또는 其後の 破인지 未詳하다.

三

今次 東國大學 黃壽永教授와 聖住寺址를 돌아보는 중에 金堂前階段左 袖板石下 地表에서 八〇cm下에는 原土에 百濟時代 蓮華文 숫막새(圖面

參照) 破片을 다시 얻었고 無文埽도 蒐集하였다. 地層을 보건대 最底下에서 百濟瓦가 불에 맞아 赤色瓦가 되고 그 위에 新羅瓦도 火災에서 赤色이 되어 李朝瓦와 混出되었다. 事蹟記를 어느 程度 信憑할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聖住寺前身이 烏合寺라는 것과 創建目的이 戰勝窀穸을 慰靈하던 寺院이라면 史記百濟本紀 義慈王十五年에 駢馬가 佛宇를 鳴迦하였다는 記錄도 兵과 馬와는 不可分の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볼적에 百濟가 國運이 기울어질 것을 暗示하던 恠變의 一種일 것이다.

그런데 百濟本紀에 義慈王十五年에 駢馬가 入北岳烏合寺란 것이 遺事에는 顯慶四年巳未 즉 義慈王十九年으로 되어서 四年의 差가 있다. 이 義慈王十九年은 百濟가 滅亡하는 前兆의 가지까지의 恠變이 일어난 記事가 있으며 日本書紀에는 齊明天皇四年 즉 義慈王十八年으로 되어서 遺事와는 一年差가 있다. 筆者가 上記 三件들을 생각할 적에 義慈王十九年에 들어갈 것을 十五年에 誤記한 듯하다.

끝으로 이 論考를 쓰게 됨은 黃壽永教授의 꾸준한 文獻蒐集에서 얻어진 聖住寺事蹟記가 있었고 東國大學 學生旅行團員에 依하여 얻어진 百濟蓮華文瓦當들이 前提되어 다시 同寺址를 調査함에서 起筆한 것이다. 黃教授에게 甚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普門寺 西塔址心礎의 調査

秦 弘 燮

慶州에서 東으로 十餘里 明活山麓에 普門洞 마을이 있어 洞里入口丘 陵에서 夫婦塚이 調査되었고 廣濶한 平地에 寺址가 傳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事實이다. 일찍이 「普門寺」在銘의 瓦片이 發見된 일이 있어서 이곳을 普門寺址로 推定하고 있다. 이곳에는 礎石과 建物 基壇이 原狀대로 남아 있는 金堂址를 中心으로 講堂址, 門址, 廻廊址, 塔址, 石燈等이 있어 이미 調査를 거친 바 있고 ① 그 외에도 幢竿支柱 一基 ② 石槽 ③